



탄탄한 지부 운영으로 유명한 '안산시지부'

리더십 · 시스템 · 봉사정신 3박자가 만든 완벽 하모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협동심이 빛을 발한다. 안산시지부는 지부 임원진과 회원들 간의 신뢰와 협동심으로 불안했던 조직을 탄탄하게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모범 지부이다. 리더십과 시스템, 봉사정신이 함께 맞물려 지부 운영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안산시지부를 들여다본다. 글 김영주 기자 · 사진 전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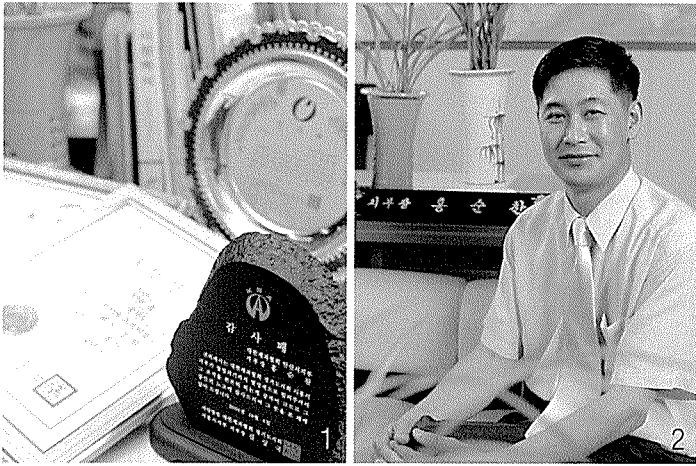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다.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조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봉사정신이 3박자로 딱딱 맞아떨어줘야 한다. 안산시지부는 다른 곳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든 조건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탄탄한 지부로 급성장했다. 안산시지부도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맞았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뚫을 뚫어 이제 탄탄한 재정력을 자랑하며 그 어느 조직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했다.

열린 사고로 회원을 끌어당긴 리더십

안산시지부는 홍순찬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연령이 평균 40대로 낮

아 지부 모임은 언제나 과감성과 생동감 넘치는 패기를 자랑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지부장을 맡아 지부를 이끌고 있는 홍순찬 지부장은 내실을 다지는 것을 지부 운영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 적극적인 회원수 확보와 관련 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 확보에 나선 홍순찬 지부장은 지부장을 맡은 지 2년 만에 번두리에 위치해있던 지부 사무실을 시내 중심지로 옮기고 지부 활동에 박차를 가해 지부를 활성화시킨 일등 공신으로 임원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큰 신임을 얻고 있다.

“34세의 어린 나이에 지부장을 시작해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후배들의 열성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안산시지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합심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회원들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안산시지부는 안산시에서 첫손에 꼽히는 모범단체로 유명하다.
 2 임원진과 회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홍순찬 지부장
 3 매달 마지막주에는 지부 사무실에서 임원진 모두가 참석하는 월례회가 열린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부 사업이 결정되고 있다.



안산시지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부장의 뜻에 공조하며 지부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논의를 하고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임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안산시지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임원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회원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장사가 잘 안되는 제과점을 보면 어떡해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부에 협조를 잘 안하거나 장사가 안되서 힘들어하는 제과점은 임원진이 직접 찾아가서 마케팅이나 기술에 대한 갖가지 상담은 물론 지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서로간에 쌓은 신뢰가 안산시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안산시지부 운영의 핵심은 ‘회원’이다. 안산시지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게해 지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을 채택해 운영한다. 안산시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부지부장이 각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지역별마다 한달에 2~3번 씩 지역회원들이 모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나 협회 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 지역 모임에서 종합된 의견들은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에 지부 사무실에서 열리는 월례회에서 각 지역별 대표들의 입을 통해 서로 전해지면서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월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지역 대표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안산시지부는 회원들과의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며 원활히 운영된다. 지역별 모임은 회의뿐 아니라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기 제품 세미나 뿐 아니라 취미생활까지 함께 하고 있다.

안산시지부 임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무장의 뛰어난 행정력이 뒷받침된 까닭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산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정한나 사무장은 매 월례회마다 지부 사업의 진행사항과 재정 현황을 꼼꼼하게 정리한 지부 소식지를 만들어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 들었던 내용들을 월례회 때 빠짐없이 얘기하며 지부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협회일에 몰입 안가리는 봉사정신

안산시지부의 임원진과 회원들은 협회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다른 기관이나 협회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참여해 안산시가 주최한 ‘작은 사람 큰 보람’이라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전국 1위를 하며 제과협회의 명예를 드높였다. 안산시지부 회원들은 동사무소와 연계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년에 2~3차례씩 케이크 등을 전하고 노인정이나 수해민 돕기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봉사뿐 아니라 제과협회 회관 건립이나 시흥지부 창립 등 협회와 관련된 일에는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작품전시회에도 80여개가 넘는 회원 업소가 참여해 더욱 뜻깊은 행사를 만들었다. 회원과 좀더 가까워지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제품력 향상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작품전시회는 정기총회를 더욱 빛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빠져거리기 일췌인 조직 운영에서 안산시지부는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균형잡힌 회음과 박자를 갖추며 아름다운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이고 있다. 🍪